익산시, 악취 주범 축사 사들여 폐쇄 구조조정

국비 등 1077억원 투입 15개 축산농가와 매매계약 체결 돼지 2만여마리 감축…새만금 수질 개선·축산 악취 해소

익산시가 왕궁면의 축사들을 사들여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새만금 수질 개선 은 물론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서다.

익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15개 축산농 가와 축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익 산시는 이를 통해 돼지 2만여 마리를 감축했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 당시 왕궁 축산단지 돼지 사육두수가 11만3000마리였으나 현재 7만여

익산시는 이번 현업 축사(현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 매입과 무허가 축사 폐쇄 명령 등으로 2 만여 마리를 감축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해 왕궁축산단지 해결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고 전북지방환경청, 한 국환경공단과 전담반을 구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신고기준 9000원/t에서 1만2000원/t)과 현업 축사 매각 농 가에 한해 처리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 여, 매각을 유도했다. 또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한 국환경공단과 함께 농지 등 잔여지 매입을 최소화 하고 대농가 위주의 족집게식 매입을 추진했다.

이번 현업 축사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 에 따라 잔여 현업축사 전량 매입의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다.

현업 축사 매입은 올해까지 국비 1077억원을 투 입해 전체 59만9000㎡ 중 43만2000㎡를 매입할

익산시 관계자는 "과감한 정책 추진과 각 기관과 의 적극적인 공조로 돼지 사육두수를 최대로 감축 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해 내년도 현업 축사 매입비 가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 감축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과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현업축사 매입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사진은 왕궁축산농장 전경. 〈익산시 제공〉

고창멜론 210만원 낙찰…2년 연속 경매 신기록



고창군은 고창멜론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오후 2시 '고창멜론 온라인 경매'를 진행했다.

향기공화국 등 정읍시 신규시책 303개 발굴

정읍시가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의 역동적인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시가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의 역동적인 도약 의 발판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 303건을 발굴, 추진

정읍시는 지난 16~18일 사흘간 시청 중회의실에 서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2021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곽승기 부시장을 비 롯해 36개 국·과·소 부서장들이 참석했으며 각 부 서별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굴한 303개 의 시책을 검토했다.

또 부서별로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시책과 정읍 형 뉴딜사업 등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 계획과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민선7기 3년 차로 접어들며 역점 시책사업 과 공약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기 자원을 활 용한 치유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방안

주요 시책으로는 ▲정읍사공원 순환도로 조성 ▲빛·소리·향기 디지털 아트센터 조성 ▲향기공화 국 오감 체험형 기획 전시 ▲향기 자원 활용 치유농 업 활성화 ▲정읍 막걸리 특화 거리 조성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정읍 첨단바이오 산학연융 합지구 조성사업 ▲정읍 첨단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 ▲정읍을 빛낸 인물 조각공원 조성 등이다.

정읍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시책사업 들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 한 후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 는 정책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선제 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직원 모두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코로나시대 신개념 마케팅 주목 군 "낙찰금액 전액 이웃돕기 기부"

고창군이 진행한 '멜론 온라인 경매'에서 2년 연속 210만원의 낙찰 신기록이 나왔다.

특히 올해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에 이은 '멜론 온라인 경매'는 코로나 시대 신개념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멜론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전날인 지난 19일 오후 2시 고창농산물 유통종합센터에서 '고창멜론 온라인 경매'가 진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행사로 올해 경매는 고 창군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전국민 누구나 쉽게 댓글로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이날 경매에는 순간 접속자가 90여명을 넘기 기도 했다. 5만원부터 시작한 경매가는 단숨에 호가 100만원을 돌파하면서 모두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150만원대에 진입하자 현장의 관계자들 도 숨 죽이며 모니터의 댓글을 지켜봤다. 종료 3 분여를 남기고 210만원의 댓글이 뜨자 장내가 술

사회자가 "210만원! 210만원! 더 없습니까"하 고 외쳤고, 더 이상의 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찰"이 선언되자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최고 낙찰가를 쓴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40대 디 자이너로 알려졌다. 시중에서 멜론 2개가 들어있 는 박스의 가격은 3만원 안팎이지만 이날 최고 경 매가는 무려 70배에 이르는 210만원을 기록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초등학교 인근 전신주 모두 뽑는다

210억 들여 2025년까지 8곳 지중화

남원시가 지역 내 8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의 전신주를 모두 제거하고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지역 초등학교 8곳(총 연장길이 6.648 km)에 대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내년 중앙・용성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통초, 남원초, 노암초, 교룡초, 월락초, 운봉초까 지 앞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남원시는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보행 위험 요 소였던 전신주와 전선, 통신선 등이 제거되면 학생 들의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고 주변 도시환경도 개 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로 전선지 중화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보행자들에게 안전하 고 쾌적한 인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이 들어설 예정인 청소 년수련관 옆 운동장.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옆 롤러스케이트장 연내 조성

순창군은 순창읍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에 롤러 스케이트장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수련관 운동장에 1600㎡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트랙, 연습 공간, 휴게실 등을 갖춰 연내에 완공된다.

순창군은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 지역 학 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롤러스케이트장이 조성될 곳이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위치해 수련 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 년수련관에는 댄스연습실, 청소년극장, 방송실 및 방송카페, 방과후아카데미교실 등이 있어 청소년 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이 문화공간 및 학습공간으로 이용했다면, 롤러스케이트장은 체력을 단련하는 지역청소년들의 새로운 놀이거점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